

독자와 함께

“왜 애기를 먹지?”... “애를 먹는다”는 것은 고생한다는 뜻

“한국말·문화 배울수록 재미 있어요”

베트남에서 온 르엉 티 홍 로안씨 ‘광주에서 살아 보니’

저는 광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로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2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이 안통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문화도 모르고 한국친구도 없고 한국말도 몰라서 밖에 나가기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남편과 같이 버스를 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을 때 남편이 버스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아서 오십시오.”라는 소리가 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안내원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났을까?” 그리고 버스카드에는 어떻게 돈이 들어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빨간 벨을 누르고 버스가 멈추면 내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나의 고창에는 없습니다. 베트남에는 운전기사한명과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는 운전하고 직원은 표를 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벨 좀 눌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 다. 그때 할아버지가 벨 좀 눌러달라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몰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요리할 때 이것저 것 “갓다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 다.

또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애를 많이 먹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왜 애기를 먹지?” 이 말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국말을 공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고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벌어진 재미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이 무겁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등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말은 배울수록 재미있습니다. 한국의 습관이나 문화를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말, 한국문화를 잘 몰라서 고생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와 함께. (맨 왼쪽이 르엉 티 홍 로안씨)

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외국어대학교다문화센터의 통번역 전담 인력으로 채용되어 현재 광주광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할 때 너무 걱정되고 긴장되었습니다. 그 전날에 잠 못 잤습니다. “내가 과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 빨리 적응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센터 선생님들과 센터장 신부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살기 힘들더라도 참고 노력하면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면 광주광산구다문화가족센터에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저와 선생님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르엉 티 홍 로안 (광산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사)

클릭! 맛집



매운 양념의 비결? 머느리도 모른다

매콤·달콤·새콤 ‘철판 닭볶음’

■ 광주 총장로 ‘증심사 중앙식당’

북남에 아직도 삼계탕만 드시나요.

요새 광주시 동구 총장로 2가 ‘증심사 중앙식당’(사장 최중현)은 삼계탕이 조금 지겨운 사람들에게 발 디딜 틈이 없다. 이 집은 매운 양념이 입맛을 돋우는 철판 닭볶음이 주 요리다.

눈치 빠른食客들은 이른바 들어도 군침부터 삼킬 정도로 맛을 인정받았던 무등산 자락 증심사 가는 길목에 있던 중앙식당(1981년 오픈) 분점이다.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 사업으로 원래 자리를 떠난 중앙식당이 증심사점(증심사 버스정류장 인근)과 총장로 점으로 나눠 오픈한 것이다.

셋째 아들이 운영하는 총장로점은 원조 손맛 장숙향(72) 여사가 1kg 안팎의 싱싱한 영계와 30년 이어온 양념을 매일 공수해준다. 머느리 이가의(37)씨가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비방으로 증심사 중앙식당의 맛을 똑같이 냈다.

양념의 비결은 머느리도 모른다. 대어섯 가지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은 지나치게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다. 골고루 양념이 배도록 30분 이상 닭을 재워두고,

초벌구이를 한 뒤 한번 더 볶는다.

숟가락처럼 두꺼운 철판에 닭과 감자를 먹기 좋게 토막 내 양념이 바삭하게 끓여 낸다. 썰지 않고 퐁퐁로 넣는 깻잎도 별미다. 딱딱한 가슴살을 깻잎에 싸서 먹으면 닭다리 못지 않는 맛이 난다. 닭고기 맛은 열무김치가 내다. 더운 날씨, 입이라도 호강하게 닭과 밀반찬으로 내오는 열무김치를 함께 먹어도 좋다.

철판을 비웠으면, 눈치보지 말고 밥을 시켜야 한다. 남은 양념에 콩나물과 밥을 넣고 쓱쓱삭삭 소리 나게 비벼 먹어야 이 집 맛을 제대로 본 것이다.

맛은 매운맛, 보통, 덜 매운맛이 있고 함께 나오는 오이냉국을 곁들이면 매운맛도 먹는다. 사교식 초로 맛을 낸 오이냉국은 삼살음이 살짝 퍼있어 입안의 매운맛을 가시게 해준다.

일행이 많으면, 흑임자와 녹두를 넣어 푹 삶은 백숙을 추가해도 좋다. 인삼, 은행, 배추, 밤을 넉넉하게 넣은 백숙은 담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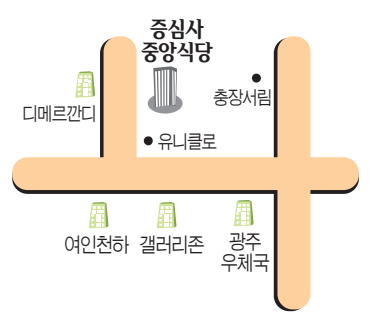
2~3명이 먹을 수 있는 철판 닭볶음은 2만3천원, 부족하면 반바리(1만2천원)를 추가할 수 있다. 백숙은 2만3천원, 공기밥 1천원. 문의 (062)228-1834.

■광복기자 kroh@ /사진=최현배기자 choi@



<닭 백숙>

■찾아가는 길



■ 칭찬합니다

광주은행 여수 광무동출장소 박영목 청원경찰

투철한 직업 의식으로 보이소피싱 막았습니다

뛰어난 기지로 보이소피싱(voice phishing)에 당할 뻔 한 고객을 도와 준 광주은행 여수 광무동출장소 박영목(39·사진 왼쪽) 청원경찰을 칭찬합니다.

지난 15일 오후 광주은행 고객 김진수(62)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정보노출 등을 이유로 여러 계좌를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특정 은행 통장의 보유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광주은행 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자 잔액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곧바로 저희 광주은행 여수 광무동출장소 305열

린코너로 자금이체를 하러 오셨습니 다.

당점의 영업시간이 지나 사무실 서터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박 청경은 열린코너에서 들려오는 통화내용이 수상해 보이소피싱임을 직감하고 뛰어난 기지로 보이소피싱을 막았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액정에 나와있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직원에게 경찰청에 신고하게 한 다음 통화를 유도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게 했습니다.

결국 전화번호 추적이 실패해 범인 검거까지는 이루어 지지 못했지만 박 청경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고객의



목소리만 듣고 보이소피싱임을 직감, 민첩한 행동으로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수경찰서장에게 감사장까지 받은 박 청경의 모습이 많이 알려져 이런 사건의 모범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기성 광주은행 여수 광무동출장소 부지점장>

독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독자와 함께”는 우리 고장 기네스, 이웃 미담, 공동체 생활, 삶터 자랑, 추억의 사진 등을 보도하는 열린마당입니다.

“숨겨진 자랑”에 실릴 시, 수필, 편지글, 사진 등 투고도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독자와 함께” 담당자 앞.

팩스 062-222-4937, e-메일 opinion@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전문가 상담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해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분양임대중)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중)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임대 “급”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062)223-1140, 0210 011-0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